

재활치료와 관련된 사람들의 작업치료에 대한 인식조사

정명진 · 장철*
경남정보대학교 작업치료학과

Awareness on Occupational Therapy by the People Involved in Rehabilit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Jung Myeongjin, OT · Jang Chel, PT, PhD*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Kyungnam College of information & Technology

Abstract

Purpose :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awareness on occupational therapy by the people involved in rehabilit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Methods : The survey on the awareness of occupational therapy was conducted on 9 organizations and 111 employees associated with rehabilitation, of which the collected data was calculated in percentage using the results

Result : 89.2% answered with "I know the subject of occupational therapy," 66.6% with "I know the meaning of it," 81.1% with "I know the purpose of it," being aware that it has been conducted in medical institutions and other places. However those answers might need more precise information for each occasion.

In addition, for the distinction between occupational therapy and other kinds(physical therapy, speech therapy, art therapy, play therapy, music therapy), 40.5% answered with "yes in some degree," but 19% with "no."

Regarding the eligibility requirement for occupational therapist, 55% answered with "qualified with a licence."

Conclusion : Active promotion will be required more focusing on the subject of occupational therapy, the meaning of occupation, the purpose and working places of occupational therapy, the difference from other therapies, and the qualification of occupational therapist

Key Words : occupational therapy, rehabilitation therapy, awareness

*교신저자 :

장철, jecclub@hanmail.net, 051-320-2917

접수일 2013년 5월 28일 | 수정일 2013년 6월 12일 | 게재확정일 2013년 6월 24일

I. 서론

재활치료는 일반적으로 병의 초기에 예방 가능한 합병증을 예방하고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된 장애에 대한 최대한의 기능적 회복을 위한 치료를 실시하는 것이다. 재활 치료의 대상은 뇌손상 및 질환, 척수손상 및 척수질환, 중추 및 말초신경 손상, 뇌성마비, 근이영양증을 포함한 소아질환, 골절, 탈구 및 염좌를 포함한 근골격계 질환 등이 해당된다. 치료분야에는 일반적인 약물치료, 주사치료 이외에 재활의학적 중재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의지 및 보조기 장착, 심리치료, 사회사업 등이 있다. 재활치료는 포괄적 전인치료를 하고 다원적 팀 접근법(multidisciplinary team approach)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방문석과 한태륜, 2008).

재활치료의 한 분야인 작업치료는 다양한 영역에서 타 전문가와 함께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 효과와 만족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성아 등, 2003; 이성아와 최정실, 2006). 협력 전문가로는 재활의학 전문의, 전문간호사, 물리치료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언어치료사, 교사와 특수교사, 직업훈련교사, 의지 보조기 제작자 등이다(최혜숙 등, 2007).

작업치료는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발달 과정에서 어떠한 이유로 기능이 저하된 사람에게 의미 있는 치료적 활동(작업)을 통해 최대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고 능동적으로 사회생활에 참여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치료, 교육하는 보건의료의 한 전문분야이다(대한작업치료사협회, 2009). 작업치료의 목적은 일상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인 면에서 능력을 발전시키거나 회복시키도록 개인을 돕는 것이다. 작업치료의 주요 개념은 기능적 독립성(functional independence)이며 작업치료는 활동을 통해 교육, 직업, 가정과 지역사회 환경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기술들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한다(Jacobs, 1985;

최혜숙, 2003). 여기서 작업이란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들의 건강과 성취를 위한 목적 있는 혹은 의미 있는 활동을 말한다(McColl 등, 2003). 즉, 일상생활활동 유지, 일, 여가 그리고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환자에게 작업을 적용함으로써 능력, 동기, 목적, 그리고 환경의 통합이 환자의 역할 수행을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다.

작업치료사는 또한 작업적 수행이 손상되었거나 손상의 위험이 있는 클라이언트가 의미 있는 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가이다(National Board for Certification in Occupational Therapy Inc.[NBCOT, 2008a]. 작업치료사는 작업이라는 매개를 이용하여 환자를 치료하는데, 작업을 통해 인간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신념이 있기 때문이다(Creek, 2002).

우리나라에서 작업치료사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대학에서 작업치료(학)과를 전공한 후 한국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서 실시하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면허증 취득 후에는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에 70% 이상 근무하고 있고 그 외 재활병원, 장애인복지관, 보건기관, 공무원, 특수학교, 아동발달센터 및 연구소, 장애인 관련 기관 및 시설 등에서 근무할 수 있다(대한작업치료사협회, 2009).

세계 작업치료의 탄생배경은 18C 정신과 환자를 대상으로 한 도덕적 치료(moral treatment)에서 시작하여 19C말 산업혁명과 1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신체 질환을 위한 작업치료가 급격하게 발전하게 되었고, 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치료 개념을 구체화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작업치료가 행하여진 것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 이후이다. 1952년 전상자를 치료하기 위해 설립되었던 정양원의 설립으로 재활치료가 시작되었고, 1953년 부산 동래에 있던 정양원이 국립재활원으로 명칭을 바꾸어 재활의학의 발판을 구축하게 되었다(이재신 등, 2005). 1979년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보건학과

에 재활의학기술학 전공이 신설되면서 시작된 작업치료교육은 2011년 현재 4년제 대학교 작업치료과 25개, 3년제 작업치료과 28개로 총 53개의 학교에 작업치료과가 있다.

우리나라는 1965년에 국가시험이 시작되어 1969년 최초의 작업치료사가 배출된 후 1979년까지 10년 동안 9명이 배출되었다. 이후 2000년까지 415명이 배출되다가 작업치료를 교육하는 대학의 증가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 동안 4,978명이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2010년까지 5,393명의 작업치료사가 배출되었다(대한작업치료사협회, 2011). 작업치료사의 급격한 증가와 작업치료서비스 관련법 개정-특수교육법, 정신보건법,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개정(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2008, 2009a, 2009b)으로 대학병원, 종합병원 중심의 의료기사 역할에서 재활전문병원, 학교, 보건소, 복지관, 사설센터, 요양시설 등 다양한 영역으로 작업치료사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이향숙 등, 2010).

국내 작업치료와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물리치료와 치료사 수를 비교해볼 때 2008년 2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 자료를 보면 각종 병·의원 및 보건소에 근무하는 작업치료사는 1,263명인 반면 물리치료사는 18,821명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보건소에 근무하는 작업치료사는 단 1명이었고, 노인요양병원의 경우 작업치료사는 386명인 반면 물리치료사는 1,794명으로 아주 큰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포괄적인 치료를 위한 팀 접근에서는 전문가들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태도에 앞서 각 영역(학문)에 대한 서로간의 이해가 필요하다. 전제하에 재활치료와 관련된 사람들의 작업치료에 대한 인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작업치료에 대한 인식에 대해 알아보려고 부산·경남 지역에 위치한 장애인 생활시설, 복지관, 정신보건센터, 장애인 상담 어린이집, 레크레이션협회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2011. 3. 28 ~ 4. 2까지 배부하였고, 무기명 자기 기입식으로 작성하도록 하여 총 120부 중 111부를 회수하였다(회수율 92.5%).

2. 연구도구

설문 내용은 라수연(2005)이 연구한 치과위생사의 인식에 관련된 설문 문항을 응용하여 수정, 보완한 것으로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표 1. 설문지 문항 구성

구분	내용	문항 수
일반적 사항	성별, 연령, 근무지 내 작업치료실 여부, 근무지, 직업	5
작업치료에 관한 일반적인 인식	작업치료에 대해 이해, 정보 습득 방법	2
작업치료의 전문성에 관한 인식	작업치료 대상, 작업의 의미, 작업치료 분야, 작업치료의 목적, 다른 치료와의 구분, 작업치료 근무지, 작업치료의 필요성	7
	작업치료사의 전문성, 작업치료사의 학력, 작업치료사의 자격 요건	3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수집된 자료의 백분율을 사용하여 Microsoft Office Excel 2007을 통해 통계 처리하여 결과를 산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성별, 연령, 근무지 내 작업치료실 유·무, 근무기관, 대상자의 직업으로 나누어 질문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대상자의 성별은 '남자' 16명(14.4%), '여자' 95명(85.6%)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5배 이상 많았다(표 2).

표 2. 연구대상자의 성별

구분		응답자 수(%)
성별	남	16명(14.4%)
	여	95명(85.6%)
합계		111명(100%)

연령은 '20대'가 53명(47.8%)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44명(39.6%), '40대' 8명(7.2%), '50대' 5명(4.5%), '60대' 1명(0.9%)으로 조사되었다(표 3).

표 3. 연구대상자의 연령

구분		응답자 수(%)
연령	20대	53명(47.8%)
	30대	44명(39.6%)
	40대	8명(7.2%)
	50대	5명(4.5%)
	60대	1명(0.9%)
합계		111명(100%)

현재 근무지 내에 작업치료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작업치료실이 있다' 21명(18.9%), '작업치료실이 없다' 51명(46%), '이전에 있었다' 39명(35.1%)으로 대부분 작업치료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4).

표 4. 근무지 내 작업치료실이 있는지 여부

구분		응답자 수(%)
작업치료실	있다	21명(18.9%)
	없다	51명(46%)
	이전에 있었다	39명(35.1%)
합계		111명(100%)

대상자들의 근무기관은 '장애인 생활시설'이 71명(64%)으로 가장 많았고, '복지관' & '정신보건센터' 22명(19.8%), '장애전담 어린이집' 14명(12.6%), '레크레이션협회' 4명(3.6%)으로 조사되었다(표 5).

표 5. 근무기관

구분		응답자 수(%)
근무지	장애인 생활시설	71명(64%)
	복지관 & 정신보건센터	22명(19.8%)
	장애전담 어린이집	14명(12.6%)
	레크레이션협회	4명(3.6%)
합계		111명(100%)

직업은 '사회복지사'가 63명(56.8%)으로 전체 응답자의 50% 이상이었고, '언어치료사' 11명(9.9%), '미술치료사' 8명(7.2%), '물리치료사'와 '특수교사' 각 5명(4.5%), '레크레이션 치료사'와 '어린이집 교사' 각 4명(3.6%), '조리원'과 '간호사(간호조무사)' 각 3명(2.7%), '영양사' 2명(1.8%), '음악치료사'와 '원예치료사', '직업훈련교사'가 각 1명(0.9%)으로 조사되었다(표 6).

표 6. 직업

구분	응답자 수(%)
사회복지사	63명(56.8%)
언어치료사	11명(9.9%)
미술치료사	8명(7.2%)
물리치료사	5명(4.5%)
특수교사	5명(4.5%)
레크레이션 치료사	4명(3.6%)
직업 어린이집 교사	4명(3.6%)
조리원	3명(2.7%)
간호사(간호조무사)	3명(2.7%)
영양사	2명(1.8%)
음악치료사	1명(0.9%)
원예치료사	1명(0.9%)
직업훈련교사	1명(0.9%)
합계	111명(100%)

2. 작업치료에 관한 일반적 인식

본 연구에서는 재활치료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의 작업치료에 관한 일반적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작업치료에 대해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관련 정보는 어떻게 접하게 되었는지 질문하였다. 또한 작업치료와 비교하여 다른 치료(물리치료, 언어치료, 미술치료, 놀이치료, 음악치료)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지 질문하였다.

작업치료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있다' 36명(32.5%), '알고 있다' 35명(31.5%), '대체로 알고 있다' 27명(24.3%), '거의 모른다' 12명(10.8%), '전혀 모른다' 1명(0.9%) 순으로 조사되었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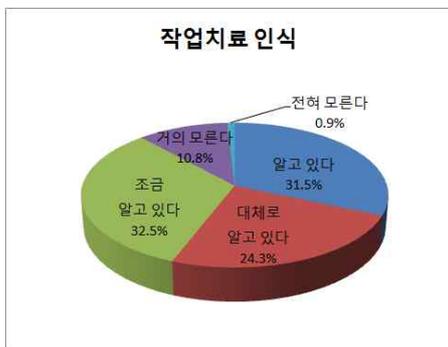


그림 1. 작업치료 인식

작업치료 외, 다른 치료(물리치료, 언어치료, 미술치료, 놀이치료, 음악치료)에 대한 인식도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표 7).

표 7. 다른 치료에 대한 인식

구분	응답자 수(%)
알고 있다	43명(38.8%)
대체로 알고 있다	37명(33.3%)
물리치료	조금 알고 있다 29명(26.1%)
	거의 모른다 2명(1.8%)
	전혀 모른다 0명(0%)
합계	111명(100%)
알고 있다	55명(49.6%)
대체로 알고 있다	35명(31.5%)
언어치료	조금 알고 있다 18명(16.2%)
	거의 모른다 3명(2.7%)
	전혀 모른다 0명(0%)
합계	111명(100%)
알고 있다	49명(44.2%)
대체로 알고 있다	35명(31.5%)
미술치료	조금 알고 있다 23명(20.7%)
	거의 모른다 4명(3.6%)
	전혀 모른다 0명(0%)
합계	111명(100%)
알고 있다	36명(32.5%)
대체로 알고 있다	38명(34.2%)
놀이치료	조금 알고 있다 34명(30.6%)
	거의 모른다 3명(2.7%)
	전혀 모른다 0명(0%)
합계	111명(100%)
알고 있다	39명(35.2%)
대체로 알고 있다	38명(34.2%)
음악치료	조금 알고 있다 30명(27%)
	거의 모른다 4명(3.6%)
	전혀 모른다 0명(0%)
합계	111명(100%)

작업치료와 다른 치료(물리치료, 언어치료, 미술치료, 놀이치료, 음악치료)에 대한 인식 여부를 비교해볼 때, 각 치료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35%를 넘는데 반해 놀이치료와 작업치료는 각 36명(32.5%), 35명(31.5%)으로 응답하여 작업치료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다른 치료의 경우 '거의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이 4% 이하이고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이 없는 반면, 작업치료의

경우 '거의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이 12명(10.8%)으로 10%를 넘고,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이 1명(0.9%)으로 조사되어 작업치료에 대한 인식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작업치료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된 방법에 대해 모두 선택하도록 했을 때 총 145 항목에 대해 응답하였다. 그 결과, '교육(직원교육 등)' 49명(33.8%), '근무지에 작업치료가 있다' 44명(30.3%), '인터넷' 13명(9%), '치료경험(본인 or 주변)' 12명(8.3%), '지인의 소개' 8명(5.5%), '방송 프로그램(영화, 드라마, 다큐)'과 '기타' 각 7명(4.8%), '관련 홍보물' 5명(3.5%) 순으로 조사되었다. 교육과 근무지에 작업치료가 있어 알게 된 경우가 각 30% 이상으로 조사되었는데, 근무지에 작업치료가 있어 직원교육을 통해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표 8).

표 8. 작업치료에 대한 정보

구분	응답자 수(%)
교육(직원교육 등)	49명(33.8%)
근무지에 작업치료가 있음	44명(30.3%)
인터넷	13명(9%)
치료경험 (본인 or 주변)	12명(8.3%)
지인의 소개	8명(5.5%)
방송 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다큐)	7명(4.8%)
기타	7명(4.8%)
관련 홍보물	5명(3.5%)
합계	145명(100%)

3. 작업치료의 전문성에 관한 인식

본 연구에서는 작업치료 전문성을 작업치료와 작업치료사로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작업치료 부분에서는 작업치료 대상, 작업치료에서 말하는 '작업(occupation)'의 의미, 작업치료분야, 작업치료의 목적, 작업치료와 다른 치료와의 구분, 작업치료 근무지, 작업치료의 필요성으로 나누어 질문하였다.

작업치료사 부분에서는 작업치료사의 전문성, 작업치료사의 학력, 작업치료사의 자격요건으로 나누어 질문하였다.

1) 작업치료 부분

작업치료 대상에 대해서는 '대체로 알고 있다'가 37명(33.3%)으로 가장 많았고, '조금 알고 있다' 34명(30.6%), '알고 있다' 28명(25.3%), '거의 모른다' 12명(10.8%), '전혀 모른다' 0명(0%)으로 조사되었다(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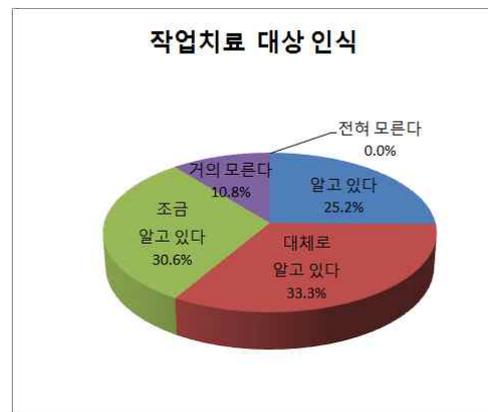


그림 2. 작업치료 대상 인식

작업치료에 대해 알고 있다면 어떻게 알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 질문에서 '조금 알고 있다 ~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 작업치료의 대상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조금 알고 있다 ~ 알고 있다'고 응답한 99명이 제시된 항목 중 334가지 항목에 대해 응답한 결과, '신체장애' 78명(23.4%), '발달장애' 75명(22.4%), '인지장애' 65명(19.4%), '심리·사회적 문제' 44명(13.2%), '정신장애' 43명(12.9%), '영적장애' 29명(8.7%) 순으로 조사되었다(표 9).

표 9. 작업치료 대상

구분		응답자 수(%)
작업치료 대상	신체장애	78명(23.4%)
	발달장애	75명(22.4%)
	인지장애	65명(19.4%)
	심리·사회적 문제	44명(13.2%)
	정신장애	43명(12.9%)
	영적 장애	29명(8.7%)
합계	334명(100%)	

작업치료에서 말하는 ‘작업(occupation)’의 의미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있다’가 40명(36%)으로 가장 많았고, ‘거의 모른다’ 35명(31.6%), ‘대체로 알고 있다’ 19명(17.1%), ‘알고 있다’ 15명(13.5%), ‘전혀 모른다’ 2명(1.8%)으로 조사되었다(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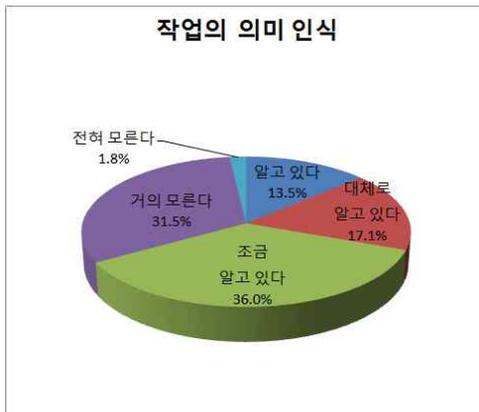


그림 3. ‘작업(occupation)’의 의미 인식

작업치료분야에 대해 생각하는 모두를 선택하도록 했을 때 총 703 항목에 대해 응답하였다. 그 결과, ‘활동 or 도구를 통한 치료’가 98명(13.9%)으로 가장 많았고, ‘근·골격계·신경계 관련 운동치료’ 84명(11.9%), ‘감각치료’ 76명(10.8%), ‘인지·학습치료’와 ‘일상생활훈련’ 각 61명(8.7%), ‘직업재활’ 41명(5.8%), ‘행동치료’ 38명(5.4%), ‘언어치료’ 34명(4.8%), ‘사회참여’ 31명(4.4%), ‘환자 or 보호자 교육’과 ‘상담치료’ 각 30명(4.3%), ‘특수재활(운전, 승마 등)’ 28명(4%), ‘보조공학서비스’ 26명

(3.7%), ‘작업 or 주거환경 개선’ 25명(3.6%), ‘여가생활’ 23명(3.3%), ‘정신건강 서비스(알콜 중독 등)’ 17명(2.4%) 순으로 조사되었다(표 10).

표 10. 작업치료분야 인식

구분	응답자 수(%)
활동 or 도구를 통한 치료	98명(13.9%)
근·골격계·신경계 관련 운동치료	84명(11.9%)
감각치료	76명(10.8%)
인지·학습치료	61명(8.7%)
일상생활훈련	61명(8.7%)
직업재활	41명(5.8%)
행동치료	38명(5.4%)
언어치료	34명(4.8%)
작업치료 분야 사회참여	31명(4.4%)
환자 or 보호자 교육	30명(4.3%)
상담치료	30명(4.3%)
특수재활 (운전, 승마 등)	28명(4%)
보조공학서비스	26명(3.7%)
작업 or 주거환경 개선	25명(3.6%)
여가생활	23명(3.3%)
정신건강 서비스 (알콜 중독 등)	17명(2.4%)
합계	703명(100%)

작업치료의 목적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있다’가 44명(39.7%)으로 가장 많았고, ‘대체로 알고 있다’ 33명(29.7%), ‘거의 모른다’ 20명(18%), ‘알고 있다’ 13명(11.7%), ‘전혀 모른다’ 1명(0.9%)으로 조사되었다(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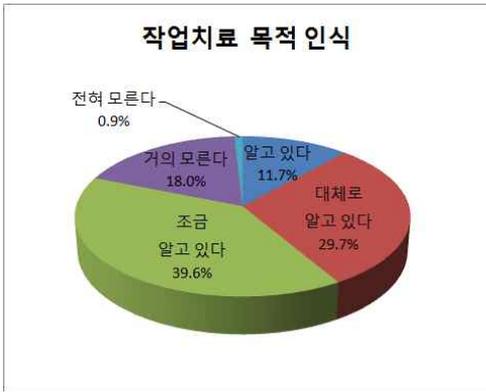


그림 4. 작업치료의 목적 인식

작업치료의 목적에 대해 알고 있다면 어떻게 알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 질문에서 ‘조금 알고 있다 ~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 작업치료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조금 알고 있다 ~ 알고 있다’고 응답한 90명이 제시된 항목 중 323가지 항목에 대해 응답한 결과, ‘기능향상’ 74명(22.9%), ‘기능회복’ 62명(19.2%), ‘독립적 생활’ 55명(17%), ‘사회참여’ 48명(14.8%), ‘삶의 질 향상’ 47명(14.6%), ‘건강회복’ 37명(11.5%) 순으로 조사되었다(표 11).

표 11. 작업치료의 목적

구분	응답자 수(%)
기능향상	74명(22.9%)
기능회복	62명(19.2%)
작업치료 목적	독립적 생활 55명(17%)
	사회참여 48명(14.8%)
	삶의 질 향상 47명(14.6%)
	건강회복 37명(11.5%)
합계	323명(100%)

작업치료와 다른 치료와의 구분에 대해서

는 ‘보통이다’가 45명(40.5%)으로 가장 많았고, ‘그렇다’ 34명(30.6%), ‘아니다’ 21명(19%), ‘매우 그렇다’ 11명(9.9%), ‘매우 아니다’ 0명(0%) 순으로 조사되었다(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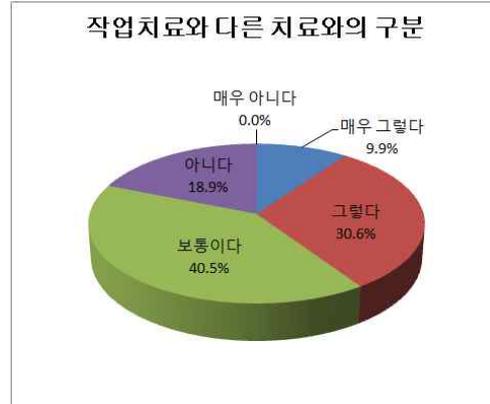


그림 5. 작업치료와 다른 치료와의 구분

작업치료 근무지에 대해 생각하는 모두를 선택하도록 했을 때 총 768 항목에 대해 응답하였다. 그 결과, ‘재활 or 요양병원’이 88명(11.5%)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병원’과 ‘특수학교’가 각 76명(9.9%), ‘복지관’ 74명(9.6%), ‘아동발달센터’ 73명(9.5%), ‘종합병원’ 71명(9.3%), ‘재활원 or 요양원’ 70명(9.1%), ‘어린이집’ 46명(6%), ‘정신병원’ 40명(5.2%), ‘재활방문서비스’ 39명(5.1%), ‘직업훈련원’ 34명(4.4%), ‘개인병원’ 30명(3.9%), ‘보건소’ 20명(2.6%), ‘의료기기 및 의수족 보조기 제작’ 18명(2.3%), ‘치료감호소’ 13명(1.7%) 순으로 조사되었다. 대체로 의료기관에 대한 응답이 많았으나 의료기관 외에서도 작업치료가 실시되고 있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알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표 12).

표 12. 작업치료 근무지 인식

구분	응답자 수(%)
재활 or 요양병원	88명(11.5%)
대학병원	76명(9.9%)
특수학교	76명(9.9%)
복지관	74명(9.6%)
아동발달센터	73명(9.5%)
종합병원	71명(9.3%)
재활원 or 요양원	70명(9.1%)
작업치료 근무지	
어린이집	46명(6%)
정신병원	40명(5.2%)
재활방문서비스	39명(5.1%)
직업훈련원	34명(4.4%)
개인병원	30명(3.9%)
보건소	20명(2.6%)
의료기기 및 의수족 보조기 제작	18명(2.3%)
치료감호소	13명(1.7%)
합계	768명(100%)

작업치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렇다’가 62명(55.9%)으로 가장 많았고, ‘매우 그렇다’ 28명(25.2%), ‘보통이다’ 20명(18%), ‘아니다’ 1명(0.9%), ‘매우 아니다’ 0명(0%)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80% 이상이 재활 치료에 있어 작업치료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그림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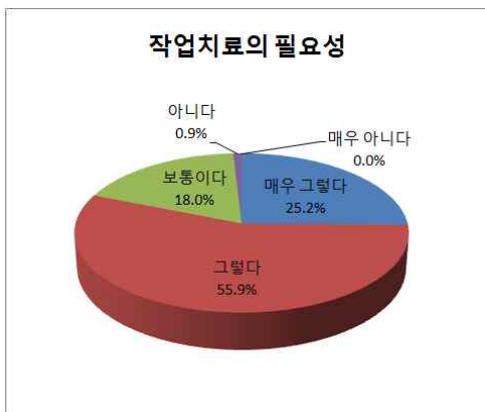


그림 6. 작업치료 필요성 인식

2) 작업치료사 부분

작업치료사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그렇다’

가 60명(54.1%)으로 가장 많았고, ‘매우 그렇다’ 40명(36%), ‘보통이다’ 11명(9.9%), ‘아니다’와 ‘매우 아니다’가 각 0명(0%)로 조사되었다. 이에 90% 이상이 작업치료사가 전문직이라고 여기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그림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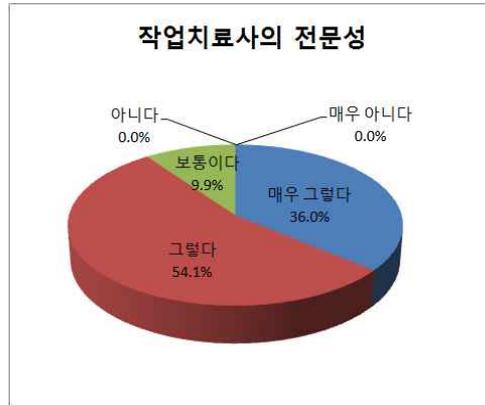


그림 7. 작업치료사의 전문성 인식

작업치료사의 학력에 대해서는 ‘전문대(3년) or 4년제 졸업’이 92명(82.9%)으로 가장 많았고, ‘전문대(2년) 졸업’ 12명(10.8%), ‘관련 교육 이수’ 6명(5.4%), ‘기타’ 의견으로 대학원 또는 석사 졸업이 1명(0.9%)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대부분 작업치료사의 학력이 전문대(3년) or 4년제 졸업 이상이라고 여기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표 13).

표 13. 작업치료사의 학력 인식

구분	응답자 수(%)
전문대(3년) or 4년제 졸업	92명(82.9%)
전문대(2년) 졸업	12명(10.8%)
관련 교육 이수	6명(5.4%)
기타	1명(0.9%)
합계	111명(100%)

작업치료사의 자격 요건에 대해 ‘자격증 소지자’가 61명(55%)으로 가장 많았고, ‘면허증 소지자’ 45명(40.5%), ‘교육 이수자’ 5명(4.5%), ‘기타’ 0명(0%)으로 조사되었

다. 61명(55%)의 응답자가 자격증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작업치료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는 의료기사임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표 14).

표 14. 작업치료사의 자격 요건

구분		응답자 수(%)
치료사 자격요건	자격증 소지자	61명(55%)
	면허증 소지자	45명(40.5%)
	교육 이수자	5명(4.5%)
	기타	0명(0%)
합계		111명(100%)

IV. 고찰

의학의 발달로 예전에는 고치기 어려운 질환들의 생존율이 증가하고 심한 외상으로 부터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장애를 갖는 사람들의 수도 증가하게 됨은 어쩔 수 없는 추세이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폭발적으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특별한 외상 없이도 노화로 인해 점차 생리학적인 변화가 나타남에 따른 기능의 저하 및 급성 또는 만성 질환의 발생률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다양한 정도의 장애의 동반이 현저하게 증가함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방문석과 한태륜, 200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활치료에 대한 필요성 증대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의 재활치료와 관련된 사람들의 작업치료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근무지 내에는 대부분 작업치료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조사대상자들의 근무지는 장애인 생활시설이 71명(64%)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업은 사회복지사가 63명(56.8%)으로 가장 많았다.

작업치료에 관한 일반적 인식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98명(88.3%)이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 김지은 등(2008)의 부산지역 고등학생들의 작업치료과 및 작업치료에 대한 인지도 조사 연구에서는 202명(28%), 위은식 등(2010)의 보건계열 대학생들의 작업치료에 대한 인식 조사 연구에서는 126명(96%)이 작업치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하였다. 이에 고등학생들은 작업치료에 대해 상대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반면 보건계열 대학생들과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재활치료와 관련된 사람들은 작업치료에 대해 상대적으로 알고 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작업치료와 다른 치료(물리치료, 언어치료, 미술치료, 놀이치료, 음악치료)에 대한 인식여부 비교에서는 ‘작업치료에 대해 거의 모른다’ 12명(10.8%), ‘전혀 모른다’ 1명(0.9%)으로 작업치료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작업치료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된 방법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교육(직원교육 등)’ 49명(33.8%), ‘근무지에 작업치료가 있다’가 44명(30.3%)으로 높았던 반면 김지은 등(2008) 연구에서는 ‘인터넷’ 59명(29.2%), ‘학과홍보지’ 47명(23.3%), ‘친구’ 42명(20.8%), 위은식 등(2010) 연구에서는 ‘기타’ 43명(34%), ‘학과홍보지’ 27명(21.4%)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재활치료와 관련된 사람들은 직원교육과 근무지에 작업치료실이 있어서 관련 정보를 가지는 경우가 많은 반면 부산지역 고등학생, 보건계열 대학생은 주로 인터넷, 학과 홍보지, 친구를 통해 정보를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어 정보를 가지게 된 방법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작업치료 부분에서 작업치료의 대상에 관한 인식에 대해서는 99명(89.2%)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그 대상을 ‘신체장애’ 78명(23.4%), ‘발달장애’ 75명(22.4%), ‘인지장애’ 65명(19.4%), ‘심리·사회적 문제’ 44명(13.2%), ‘정신장애’ 43명(12.9%), ‘영적 장애’ 29명(8.7%) 순으로 알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작업치료에서 말하는 ‘작업(occupation)’의 의미에 대해서는 74명

(66.6%)이 ‘알고 있다’, 37명(33.4%)이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작업치료 분야에 대해서는 ‘일상생활훈련’ 61명(8.7%), ‘직업재활’ 41명(5.8%), ‘사회참여’ 31명(4.4%), ‘환자 or 보호자 교육’ 30명(4.3%), ‘특수재활(운전, 승마 등)’ 28명(4%), ‘보조공학서비스’ 26명(3.7%), ‘작업 or 주거환경 개선’ 25명(3.6%), ‘여가생활’ 23명(3.3%), ‘정신건강 서비스(알콜 중독 등)’ 17명(2.4%)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작업치료분야에 대해 다양하게 알고 있으나 위 사항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작업치료의 목적에 대해서는 90명(81.1%)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그 목적을 ‘기능향상’ 74명(22.9%), ‘기능회복’ 62명(19.2%), ‘독립적 생활’ 55명(17%), ‘사회참여’ 48명(14.8%), ‘삶의 질 향상’ 47명(14.6%), ‘건강회복’ 37명(11.5%) 순으로 알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작업치료와 다른 치료와의 구분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구분 된다’ 45명(40.5%), ‘보통이다’ 45명(40.5%), ‘구분되지 않는다’ 21명(19%)로 조사된 반면 김지은 등(2008) 연구에서는 ‘구분 된다’ 305명(42.8%), ‘보통이다’ 181명(25.5%), ‘구분되지 않는다’ 70명(9.7%), ‘모르겠다’ 127명(17.8%), ‘무응답’ 30명(4.2%), 위은식 등(2010) 연구에서는 ‘구분 된다’ 37명(28.2%), ‘보통이다’ 66명(50.4%), ‘구분되지 않는다’ 28명(21.4%)로 조사되었다. 이에 세 그룹 모두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재활치료와 관련된 사람들이 고등학생들보다 더 구분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작업치료 근무지에 대해서는 병원 외 ‘재활원 or 요양원’ 70명(9.1%), ‘어린이집’ 46명(6%), ‘정신병원’ 40명(5.2%), ‘재활방문서비스’ 39명(5.1%), ‘직업훈련원’ 34명(4.4%), ‘개인병원’ 30명(3.9%), ‘보건소’ 20명(2.6%), ‘의료기기 및 의수족 보조기 제작’ 18명(2.3%), ‘치료감호소’ 13명(1.7%)으로 조사된 반면 김지은 등(2008) 연구에서는 ‘병원’ 303명(28.1%), ‘재활센터’

230명(21.3%), ‘복지시설’ 220명(20.3%), 위은식 등(2010) 연구에서는 ‘재활센터’ 102명(30.8%), ‘병원’ 95명(28.7%), ‘복지시설’ 83명(25.1%)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부산지역 고등학생들과 보건계열 대학생들은 주로 병원, 재활센터, 복지시설로 알고 있는 반면 재활치료와 관련된 사람들은 의료기관과 의료기관 외의 곳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좀 더 다양하게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작업치료의 필요성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그렇다’ 90명(81.1%), ‘보통이다’ 20명(18%), ‘아니다’ 1명(0.9%)으로 조사된 반면 김지은 등(2008) 연구에서는 ‘그렇다’ 400명(56.1%), ‘보통이다’ 170명(23.9%), ‘아니다’ 26명(3.6%), ‘모르겠다’ 85명(11.9%), ‘무응답’ 32명(4.5%), 위은식 등(2010) 연구에서는 ‘그렇다’ 91명(69.5%), ‘보통이다’ 39명(29.8%), ‘아니다’ 1명(0.7%)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세 그룹 모두 재활치료가 있어 작업치료가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작업치료사 부분에서 작업치료사의 전문성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그렇다’ 100명(90.1%), ‘보통이다’ 11명(9.9%), ‘아니다’ 0명(0%)으로 조사된 반면 김지은 등(2008) 연구에서는 ‘그렇다’ 498명(69.9%), ‘보통이다’ 105명(14.7%), ‘아니다’ 20명(2.8%), ‘모르겠다’ 60명(8.4%), ‘무응답’ 30명(4.2%), 위은식 등(2010) 연구에서는 ‘그렇다’ 103명(81.1%), ‘보통이다’ 22명(17.3%), ‘아니다’ 2명(1.6%)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세 그룹 모두 대체적으로 작업치료사를 전문직이라고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작업치료사의 학력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전문대(3년) or 4년제 졸업’이 92명(82.9%), ‘전문대(2년) 졸업’ 12명(10.8%), ‘관련 교육 이수’ 6명(5.4%), ‘기타’ 의견으로 대학원 또는 석사 졸업이 1명(0.9%)으로 조사된 반면 김지은 등(2008) 연구에서는 ‘대졸’ 322명(45.2%), ‘전문대 3년’ 162명(22.7%), ‘전문대 2년’ 103명

(14.5%), ‘기타’ 55명(7.7%), ‘고졸’ 40명(5.6%), ‘무응답’ 31명(4.3%), 위은식 등(2010) 연구에서는 ‘전문대 3년’에 96명(73.3%), ‘대졸’ 20명(15.3%), ‘전문대 2년’ 13명(9.9%), ‘기타’가 2명(1.5%)으로 답하였다. 이에 재활치료와 관련된 사람들과 보건계열 대학생들은 대체적으로 작업치료사의 학력이 전문대(3년) or 4년제 졸업 이상이라고 알고 있는 반면 부산지역 고등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작업치료사의 학력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작업치료사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자격증 소지자’가 61명(55%), ‘면허증 소지자’ 45명(40.5%), ‘교육 이수자’ 5명(4.5%)으로 조사된 것으로 보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작업치료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는 의료기사임을 알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활치료를 위한 팀과 작업치료 분야가 다양한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재활치료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실제 조사 시 사회복지사와 장애인 생활시설 직원에 편중되었다.

둘째,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 연구가 다소 부족하여 본 연구 결과와 비교하거나 참고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참고한 자료에 있어서도 동일한 설문항목에 대한 척도가 달라 설문결과를 비교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는 재활치료와 관련된 사람들이 작업치료에 대해 얼마나, 어떻게 알고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조사한 것으로 향후에는 작업치료에 관한 홍보의 효과와 재활치료를 함에 있어 팀 접근에 따른 만족도와 효과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재활치료에 대한 필요성

증대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 재활치료와 관련된 사람들의 작업치료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해당 근무지에 작업치료실이 있거나 직원교육 등을 통해 작업치료에 대해 알고 있으나 다른 치료(물리치료, 언어치료, 미술치료, 놀이치료, 음악치료)에 대한 인식과 비교했을 때 작업치료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작업치료 대상, ‘작업(occupation)’의 의미, 목적, 근무지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재활치료에 있어 작업치료가 대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으나 작업치료와 다른 치료와의 구분이 잘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작업치료사가 전문직이라고 여기고 있으나 작업치료사의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작업치료의 대상, ‘작업(occupation)’의 의미, 목적, 근무지, 작업치료와 다른 치료와의 차이점, 작업치료사의 자격요건에 대해 좀 더 중점을 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본 연구가 작업치료에 관한 홍보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김지은, 김진하, 배진우 등(2008). 부산지역 고등학생들의 작업치료과 및 작업치료에 대한 인지도 조사. 경남정보대 작업치료과 학술지.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200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일부개정 2008, 2,

- 29 법률 제 8852호).
-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2009a). 정신보건법 시행규칙(2009, 3, 23일자 개정내용).
-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2009b).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09, 5, 21일자 일부개정내용).
- 대한작업치료사협회(2009). 작업치료 소개. 2009년 12월1일 출력(2002. 01) <http://www.kaot.org>
- 대한작업치료사협회(2011). 작업치료사가 되는 방법, 작업치료 학교 안내, 작업치료사 면허등록현황. 2011년 9월 출력.
- 라수연(2005). 대학생들의 치과위생사에 관한 인식도 조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방문석, 한태륜(2008). 재활의학. 서울, 군자출판사.
- 이성아, 김지연, 조은희 등(2003). 감각조절장애 아동을 위한 가정 프로그램의 효과. 대한감각통합치료학회지, 1(1), 1-13.
- 이성아, 최정실(2006). 감각통합 장애 아동을 위한 작업치료적 가정 방문 자원 활동의 만족도. 대한감각통합치료학회지, 4(1), 1-8.
- 이주연(2011). 국내 정신과 작업치료의 현황 조사연구. 한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재신, 이택영, 이지연 등(2005). 최신 작업치료학 개론. 서울, 탐메디오피아.
- 이향숙, 정민예, 정보인 등(2010). 국내 작업치료사의 직무특성조사 및 직무분석. 대한작업치료학회지, 18(2), 1-21.
- 위은식, 김대환, 이민지 등(2010). 보건계열 대학생들의 작업치료에 대한 인식 조사. 경남정보대학교 작업치료과 학술지.
- 최혜숙(2003). 작업치료학 4판. 서울, 현문사.
- 최혜숙(2007). 아동작업치료 5판. 서울, 현문사.
- Creek, J(2002). The knowledge base of occupational therapy. In J. Creek (Ed.), Occupational therapy and mental health (3rd ed., pp. 29-50). Edinburgh, Churchill Livingstone.
- Jacobs, K(1985). Occupational therapy: Work-related programs and assessments.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 McColl MA, Law M, Stewart D, et al(2003). Theoretical basis of occupational therapy 2nd ed. Thorofare, Slack.
- National Board for Certification in Occupational Therapy Inc.[NBCOT, 2008a]. Executive summary for the practice analysis study: Occupational Therapist Registered, NBCOT 2008 Practice Analysis. Gaithersburg, Author.